

전북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입학사정관제 시행 후 10년 연속... 고교-대학 연계·자유학기제 지원 프로그램 높이 평가받아

원광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7년 연속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이만호)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선정, 지원하는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돼 8억7천1백만원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는 지난 4월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전북대는 2016년에 이어 계속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8억7천1백만원의 국고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전북대는 지난 2008년 입학사정관제 실시 이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주관하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사업,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10년 연속 선정돼 국고를 지원 받게 됐다.

전북대는 지난해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영향력 강화, 고교-대학 연계 강화, 고른기회 전형 입학생들에 대한 추수지도 강화 등 실질적인 공교육 정상화 개선효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거점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진로 및 자유



전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10일 부안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7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학기제 지원프로그램 등을 시행,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종문 전북대 입학본부장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연속 선정됨에 따라 입시제도의 선진화는 물론 우수학생 유치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 총장 김도중(중)도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회에서 주관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7년 연속 선정돼 정부지원을 받는다. 원광대는 입학사정관제 역량강화

지원 사업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까지 7년 연속 선정됐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두 배 많은 7억 1천만 원의 지원비를 받음으로써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원도심·농어촌 교육발전 협의회 열어

원도심학교 종합평가 내·외부전문가 평가단 구성·활성화 방향 등 안건 심의

전라북도교육청이 원도심·농어촌 교육발전 협의회를 각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 개최한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도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는 2년 임기가 만료되어 2017년 4월 1일자로 임명 및 위촉된 위원 20명이 참석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어 2017년 원도심학교 종합평가 내·외부전문가 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과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향

및 지원방안 등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원도심학교가 3년차 되는 해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2018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향을 도교육청에 제안하게 된다.

12일에는 오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가 열린다.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도 2년 임기가 만료되어 지난날 1일자로 임명

및 위촉된 위원 20명이 참석해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8년 어울림학교 활성화 방향 및 기타 어울림학교 지원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원도심학교와 마찬가지로 어울림학교도 3년차에 내·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18년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향을 도교육청에 제안한다.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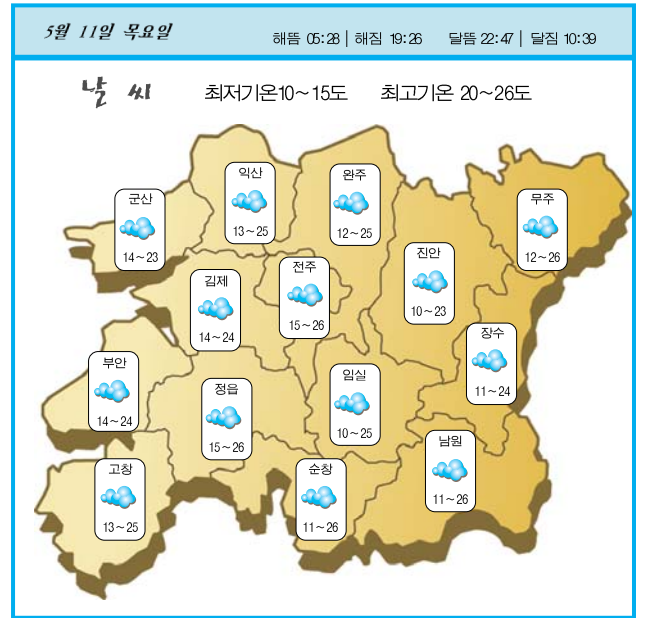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783명 발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날 8일 실시한 2017년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확정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실시된 검정고시 합격자를 보면 초졸 검정고시는 88명이 응시하고 63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73.2%이고 중졸 검정고시는 응시자 2백38명 가운데 1백92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80.67%, 고졸 검정고시는 7백68명이 응시해 5백28명이 합격하여 74.79%의 합격률을 보였다.

합격증서는 내달 12일까지 도교육청 1층 고객지원실에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시 합격증서를 우편 수령으로 희망한 합격자에 한하여 우편 발송한다. 성적확인은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개인별 조회가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상반기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개최

전주시는 10일 시청 8층 재난상황실에서 2017 상반기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협의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17년 상반기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등이 이뤄졌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보호, 자립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올해 사업운영을 통해 총 335명의 청소년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했고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으로 총 107명의 청소년이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도내 주요 사범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질 높은 검정고시 수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최명희 위원장은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 및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혜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올해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년차 발전기로서 학교 밖 청소년 질적관리와 우수사례 발굴 등 보다 내실 있는 센터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전문기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홈페이지(www.jisangdam.or.kr) 또는 전화(063-227-1005)로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대입 수시 합격전략 설명회

13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지난해 대입 수시전형에서 합격한 사례를 분석, 효과적인 지원전략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개최된다.

13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8년 학생부 평가방법을 안내하는 서울대 입학전형 안내도 있다. 2018학년도 대입 수시비율은 73.7%로 전년 대비 약 4%가 늘었다.

이번 설명회는 강세웅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자료개발팀장이 지난해 수시전형 합격사례를 분석해 효과적인 수시지원전략을 발표한다.

또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 2018학년도 서울대 입학전형과 학교생활 기록부 평가방법을 안내한다.

고교 전학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물론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도 권장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리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더럽히지 않는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금의 '보급'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